

# “관광객 유치로 일자리·인구 늘리겠다”

2023 세에 설계

강진원 강진군수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가는 강진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강진원 강진군수가 8일 포부를 밝혔다.

강 군수는 “국·도비 확보와 민간 투자유치 없이 강진의 획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면서 “2023년은 민선 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해로, 방향은 정해졌고 온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뚝뚝 뚝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 전체 산업 비율의 71%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에 힘을 실기 위해 전체 예산의 27.3%인 1,258억원을 투입해 6차 산업으로의 고부가가치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진 찹쌀을 지역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80ha의 쌀귀리 특구로 지정해 육성하며 읍면천 일대 30ha를 토하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강 군수는 언급했다.

관광산업을 통한 간접적인 인구 늘리기도 방침을 짰다. 강 군수는 경쟁력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500만 명 유치를 위해 ‘A로의 초대, 아게인 남도답사 1번지 강진’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강진을 ‘오감통’을 활력 넘치는 음악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해양레저 관광거점단지 도약

남도답사 1번지 프로젝트 가동

강진만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요트, 카약, 수상스키 등 레저와 생태, 남도 맛, 관광, 스포츠가 결합한 융복합형 해양 레저 관광거점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강진의 대표 관광지 가운데 ‘나이트 투어 경관’을 조성해 그동안 없었던 밤 관광의 새로운 자평을 열고 관광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강 군수는 소개했다.

귀농·귀촌 인구를 견인하기 위한 빈집 정비와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도 착수한다.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2 푸소’를 활용해 경제활동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빈집 100세대를 올 한해 먼저 정비한다.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생산, 유통, 홍보, 마케팅에서 행정 처리까지 모두 아우르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을 새롭게 설립한다고 강 군수는 밝혔다. 400억 원 규모의 강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강 군수는 5년째 미취학 상태로 멈춰 있는



마량~제주 화물선을 다시 추진하고 마량에 바다낚시 어선단을 유지한다는 복안도 내놨다. 전국 최고 규모를 자랑하며 화제에 올랐던 강진형 육아수당을 본격화하고 교육청과 협의 중인 학생 기본수당도 추진한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민간사업의 유지를 위해 2011년 폐교된 성화대를 매입해 성전면의 경제를 살리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강 군수는 강진읍에 제2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게이트볼장, 파크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 신설해 노인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신개념의 민원소통위원회도 본격 출범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하고 집단 갈등이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준비한다.

강진원 군수는 “기적은 불가능에서 시작되고 혁신은 변두리에서 일어난다”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완도, 라오스 첫 수출길

전북 절편·해조 국수 등 47개 품목

완도군이 최근 완도군 농공단지 바다명가 제2공장 앞에서 라오스 비엔티안 소재 콕메가 마트로 완도 수산물들 첫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조영식 부의장, 조인호 의원, 김양훈 의원, 박재선 의원이 참석했으며, 수출 기업 6곳 대표도 참석했다.

이날 전북 절편과 해조 국수, 전북 차우더, 모듬 해초, 김, 미역 등 총 47개 품목, 약 5,000만 원 상당의 물량이 선적됐다.

이번 수출은 지난해 11월 라오스 시장 개척단 파견의 후속 조치로 행정-수출 기업-해외 바이어 간의 약 50일간의 지속적인 화상 회의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이뤄낸 것이다.

특히 그동안 라오스에 없던 대형 유통 체인 콕메가 마트 오픈과 함께 라오스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다양한 완도산 제품을 선보이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현지의 더 많은 소비자들이 완도 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2월 초 콕메가 마트 매장 내 시식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콕메가 마트는 1호점을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안에 지난해 12월 중순 오픈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 해남, 재정집행 전국 군 ‘1위’

해남군이 20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은 물론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도내 1위 재정집행 달성은 최초로 해남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상액인 1조 3,274억원 중 1조 1,385억원(85.8%)을 집행해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이같은 집행률은 전남도 22개 시군 뿐 아니라 전국 동종규모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도 최고 실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하반기 목표액 1,378억원 대비 734억원을 초과 집행, 153.3%의 집행률을 달성해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회의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사례관리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집행률을 높여왔다. /해남=박병태 기자

## 담양,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 마무리

상징 조형물·간판 등 정비

담양군이 새로운 음식특화거리인 ‘창평국밥거리’의 새단장을 마쳤다. <사진>

담양군은 2021년 남도음식거리 공모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창평국밥거리 조성사업은 음식문화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진행했다. 창평국밥거리는 1919년 창평 전통시장 개설과 함께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슬로시티와 함께 담양군 창평면의 대표적인 관광지 자리잡았다.

군은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거리 상징조형물 ▲주차장 내 소공원 ▲디자인 버스승강장 ▲포토존 수목벤치 ▲디자인 간판 등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화장실 외벽 정비 등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장성, 벼 출하장려금 지급 완료

장성군이 통합RPC, 지역농협 등에 벼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 지원을 최근 완료했다.

군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40kg 들이 1포대당 2,000원을 출하장려금으로 지급했다. 지원하는 물량은 약 21만 3,000포대로 사업비 4억 3,000만 원 전액 군비로 충당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1등급 기준 6만 4,530원으로 전년보다 13% 하락해 농가 시름이 여전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전년 대비 쌀 수매 물량을 204% 확대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한 데 이어, 쌀값 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통합RPC, 지역농협 출하 농가에 출하장려금 연내 지급을 마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박영인 영광고추마을 대표, 고추장 나눔

영광고추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박영인)이 최근 1,000만 원 상당의 태양초 가공품인 찹쌀고추장 408개를 영광군에 기탁해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영광고추마을 영농조합법인’은 2002년 설립돼 매년 이웃사랑과 나눔에 참여하고 지역의 명품 태양초 고추를 가공 판매하며 전통 특산품의

전국 브랜드화를 구축했다. 박영인 대표는 “태양초의 우수한 품질로 만든 고추장을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특산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매년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는 대표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 무안산림조합, 승달장학회에 2천만원

무안군은 최근 무안군산림조합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무안군승달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무안군산림조합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 임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0

년 700만원, 2021년 2,000만원에 이어 이번에도 2,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산 군수는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주고 계신 무안군산림조합에 감사 드린다”며 “장학금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 이리중 희망농기계 대표, 장학금 기탁

나주시는 희망농기계 이리중 대표가 작년에 이어 인재육성기금 500만원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시청사 시정실에서 기탁식을 가진 이리중 대표는 “나주의 미래는 인재육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면학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지역민들에

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994년 설립된 (주)희망농기계는 나주에 분사와 1공장을, 광주에 2공장을 둔 중견 농기계 업체로 인재육성기금과 더불어 아동·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금 기탁과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나주=조충권 기자